



의료기관 종사자의 에이즈 환자 관리 요령

오 향 순 |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전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의료기관은

-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 또한 안전장비의 사용, 보호장비의 사용 등과 같이 그들이 직무 중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는 것과,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에 HIV 양성자수가 많아지고 AIDS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이러한 환자를 경험하게 되는 의료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HIV 양성자나 AIDS 환자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의료직원들은 거의 panic state(저자가 보고 느끼기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환자들은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고 사용한 기구들은 나 버려야 되고 입은 옷과 린넨 등은 나 태워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신경 쓰일 바에야 아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집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감염관리실에 문의하는 의료기관 근무자(의료인)들은 대부분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를 처음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모습만 비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상담자 대부분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면서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상식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아서 에이즈의 감염경로나 전파의 특징,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에이즈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있

고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환자를 들보다가 감염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중에서 우선 전파경로, 즉 혈액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사실과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파예방을 위한 행위, 즉 안전보호대, 장갑, 마스크, 가운과 같은 각종 보호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그러한 경우에 철저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사용한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으므로 의료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독제나 멸균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상담 시 에이즈 바이러스의 소독제에 대한 효과, 의료행위 중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의료행위 중 감염예방을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나 잘못된 정보의 수준은 많이 감소되나 심리적인 거부감은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의료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처음 경험하는 중요한 질환에 대한 거쳐야하는 홍역과도 같은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에이즈를 처음 경험하는 의료직원들은 에이즈 환자관리를 일단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고, 에이즈 환자관리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의료직원 가운데 에이즈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어 감염 위험에 놓이게 된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적인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 상처부위를 물과 비누로 세척하고 소독을 하도록 하며, 에이즈 전문의사에게 예방적 화학요법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며,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작해야하는 경우에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위해 사고 발생 즉시 anti-HIV 검사를 기본검사로 실시하고 이어서 6주 후, 12주 후, 6개월까지 추적검사를 해야한다.

추적기간 동안 감염위험에 노출된 직원은 불안과 갈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심리적 지지가 있어야한다.

다행히 의료기관내에 감염위험에 노출된 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 감염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직원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어서 감염위험에 노출 즉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의료기관은 HIV양성자 및 에이즈환자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환자를 올바르게 돌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안전장비의 사용, 보호장비의 사용 등과 같이 그들이 직무 중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는 것과,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한다.

